

중부내륙고속도로
일부노선 변경 건의

충 청 북 도

중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변경

- 대상구간 : 여주 가남(28.4km기점)~충주I.C부근(41.8km)의 구간에 위치
노은면 연하리, 신희리~주덕읍 사락리, 장록리~이류면 장성리간 13.4km구간
- 변경점토(Ⅱ안) :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, 신희리~가금면 하구암리 용전리~이류면 장성리로
15.5km 구간
- 변경점토(Ⅲ안) :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, 신희리~가금면 하구암리 용전리~이류면 장성리로
14.8km 구간

1. 노선변경의 필요성

1) 충주시의 발전 전망

도시발전방향

- 기존 충주시 주변지역은 남한강 상류지역으로 충주호 등 수변지역으로 둘러 싸여 있어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어려움.
- 동남북 방향은 산악지형으로 도시확장이 불가능함.
- 따라서 충주시는 장차 주덕~음성방향으로 발전 될 것으로 전망되며,
- 주덕~이류부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가 위치할 예정이어서 지역내 접근도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임.

충주통합시의 개발계획 및 인구전망

- 충주시와 증원군이 통합 될 당시 지역주민에게 제시한 지역개발 방향은 1단계 대소~화곡지구개발, 2단계 당우지구개발임.
-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충주과학산업단지 건설(대소~화곡지구)계획이 수립중에 있음.
- 대통령 공약사업인 충주과학산업단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0년후인 2005년경 충주시의 인구는 현재 20만명에서 33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, 주덕~이류지역에만 증가인구의 60%이상인 7~8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.
- 따라서 주덕~이류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05년경에는 명실상부한 충주통합시의 과학

2)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착공 건설

-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기존 경부축의 교통량 분산효과와 함께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유인효과를 줄것임.
- 충주지역주민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착공 계획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 도 정부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.
-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착공으로 지역숙원사업이자 대통령공약사업인 충주과학산업단지 건설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음.

3)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부노선 변경 필요

-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5년경이 되면 주덕~이류지역은 인구 7~8만의 충주통합시의 부도심으로 발전하게 됨.
-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중 장호원기점 32.5km지점부터 충주IC 40km지점까지 약 7.5km구간이 충주과학산업단지 예정 지역(주덕~이류)을 통과하게 되어 있음.
- 예정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심내의 과도한 불용지 발생, 소음, 분진, 지역간 분리 등 도시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됨.
- 지역간 연결도로의 경우 도심내 통과를 지양하고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충주통합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부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및 충주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진흥을 열망하고 있는 충주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일부구간의 노선변경이 필요함.

2. 대안노선의 검토

1) 변경구간

- 대상노선: 여주군 가남면 기점 28.4km지점~41.8km지점(13.4km구간)
노은면 연하리, 신호리~주덕읍 사락리, 장록리, 제내리~이류면 장평리
- 변경 검토(II안) : 여주군 가남면 기점 28.4km~41.8km지점(15.5km구간)
노은면 연하리, 신호리~가금면 하구암리, 용전리,~이류면 장성리

2) 기존구간의 문제점

- 기존 설계노선에서 통합충주시 노은면 문성리~주덕읍 사략리(L=0.9km)구간은 지형이 험준한 구간으로 계획노선이 S자형을 이루고 있음.
- 또한 주덕읍 사략리, 장록리, 제내리, 이류면 영평리 부락이 노선과 인접하여 소음과 분진, 지역간 분리 등이 예상되며 앞으로 조성될 부도심 지역을 관통하게 됨
- 특히 충주IC부근이 인구집중지역으로 노선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며 검은들, 성종부락의 일부가 이주되어야 함.
- 향후 도시의 부도심으로 발전될 경우 노선 변경의 불가피.

3) 변경구간 검토

【변경노선Ⅱ안】

- 변경노선(Ⅱ안)은 대상구간 15.5km중 직선노선이 10km이상으로 선형이 완만함
다만 교량이 기존노선에 비해 많으며 (장대교 4개소, 소교량 2개소), 계획구간이 2.1km 늘어나 사업비가 약 380억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
-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음발생이 적으며, 지역분리 피해가 적게 나타나고, 충주시의 장기발전 전략에도 부합하여 지역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

【변경노선Ⅲ안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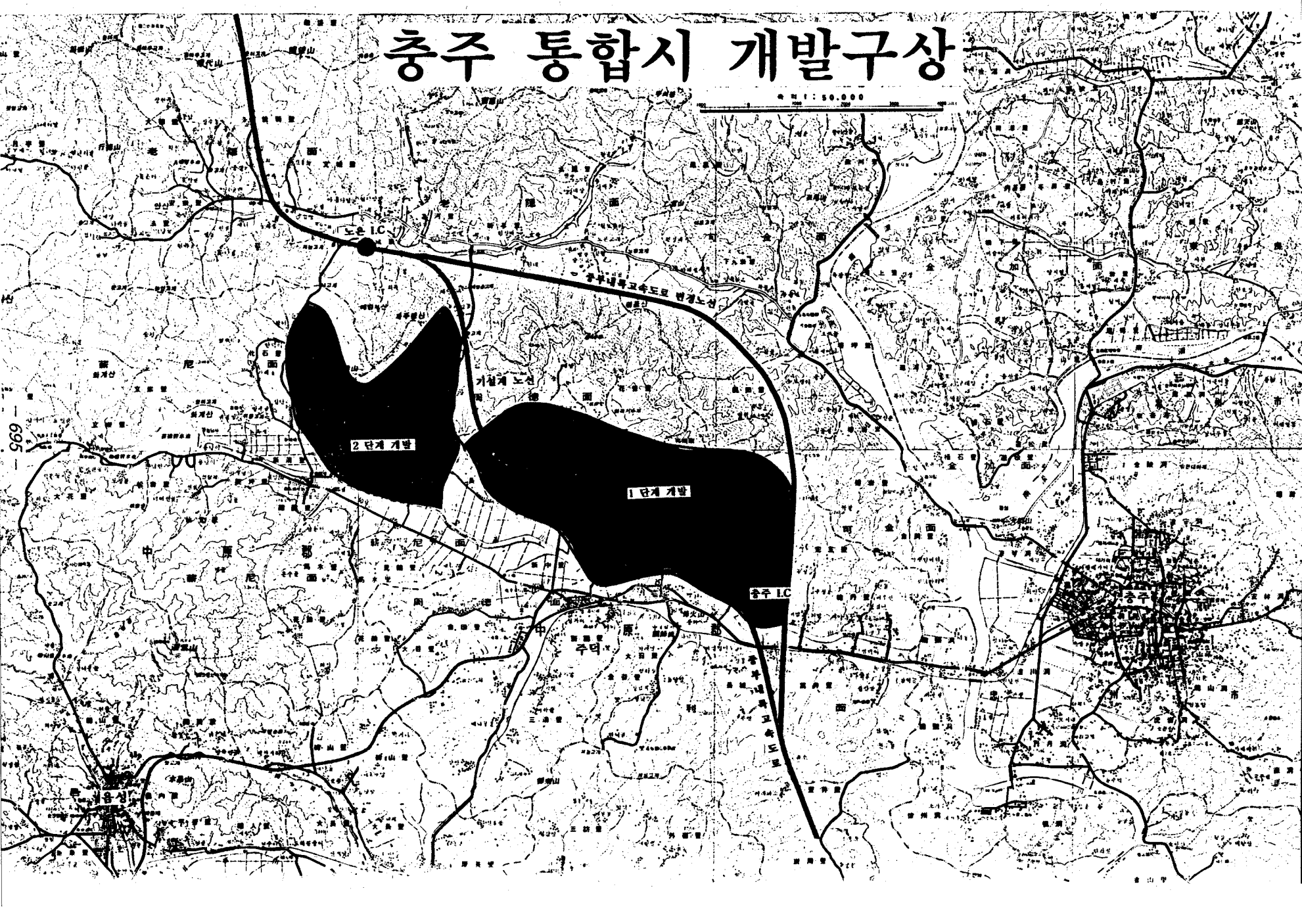
- 변경노선(Ⅲ안)은 대상구간 14.8km중 직선노선이 12km이상으로 선형이 완만하고 터널구간이 없어 공사비는 I안과 비슷하고(+44억원)
- 계획구간에 5개부락(54가구)와 인접하여 I안, Ⅱ안에 비해 현저히 낮음으로 계획노선으로 매우 양호함.

3. 종합검토 및 건의

- 변경노선(Ⅱ안)의 경우 초기 건설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유리하며, 민원 및 환경피해가 적게 발생되나,
- 공사비가 과다 추가 소요되고, IC부지 면적 협소가 예상되므로 변경노선(Ⅱ안)으로 변경이 어려울시 (Ⅲ안)으로 노선변경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충주 통합시 개발구상

축척 1:50,000



2 단계 개발

1 단계 개발

충주 IC

주덕

기설계 노선

충주내륙고속도로 변경노선

569